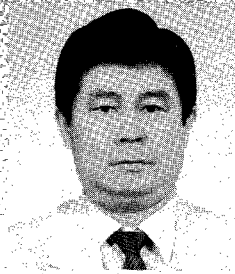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 체벌과 교육



최진호  
최진호연구소

요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교육부가 학생들에 대한 체벌(體罰)을 전면 금지시킨 후로 교사들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고 순진해서 체벌을 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통솔이 가능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거치른 학생들을 통솔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어느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학교로 출동하여 교사를 연행하여 한동안 떠들썩한 일도 있었다. 경찰의 무분별한 업무집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후 교사를 연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도 몇 차례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는 일선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아예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다. 체벌을 금하기 전에도 학생들이 워낙 드셔서 마음이 약한 교사들은 학생들을 다루는 것이 힘들어서 웬만한 잘못을 보아도 모르는체 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개성이 강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의 탈선을 보고 참지 못하는 의협심(?)에서 학생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체벌을 가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어느 학교에나 으레 한 두 명씩 있는 이러한 호랑이 선생님(?)들에 의하여 최소한의 질서가 그런대로 유지되었던 학교에서 그나마 체벌을 금지시켜 버렸으니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꾸짖어 주는 교사가 없다고 한다.

체벌이란 인간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수단으로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바람직하기는 교사는 그 자신이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가운데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훈육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며 훌륭한 가르침에 교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사가 그렇게 고매한 인격자이기를 기대할 수도 없지만 모든 학생들이 순종적이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간에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벌은 아니더라도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강제성을 띄는 수단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대안도 없이 하루아침에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낡은 건물의 기둥이 썩어가고 있다고 가정하자. 썩어가는 기둥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제거하더라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고여놓고 나서 낡은 기둥을 제거하고 새 기둥을 끼워 넣어야 할 것이다.

기둥을 교체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기둥이 더욱 썩어서 결국은 건물이 무너지겠지만 아직까지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리 썩어가는 기둥이라도 아직은 그것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둥을 교체하려 한다면 낡은 기둥을 제거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고 교체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당장 낡은 기둥을 제거한다면 건물은 즉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교사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버팀목도 설치하지 않고 낡은 기둥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체벌이 비록 원시적이고 비인격적인 수단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런대로 지금까지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기둥의 역할을 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교육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리고 체벌이 아니더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통솔하는 방법을 강구한 후에 자연스럽게 체벌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여 가도록 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악(必要惡)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느날 갑자기 체벌을 전면 금지해버린 교육부의 처사는 너무나 무모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의 교육현실을 염려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체벌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는 모양이다.

체벌을 무조건 금지한 것도 걱정스럽지만 반대로 체벌을 합법화해서 부추기는 것도 걱정스럽다.

체벌을 하는 교사들 중에는 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매'를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중에 더러는 습관적으로 또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매를 들거나 심한 경우 가학행위(加虐行爲)를 통해서 자기만족을 얻는 정신병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사랑의 매'와 그렇지 못한 매를 객관적으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서 이것을 구별하는 노력을 한 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양계**